

태국 10만 승려 집단 수계의식



엄숙하고 신비스러웠다

3만여 태국 출가후보자들이 수계 허락을 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계 전 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 도송근 스님 · ks ordain simultaneously The executive d

"Buddham Pujemi, Dhammam Pujemi, Samgham Pujemi(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불법에 귀의합니다. 스님들에 귀의합니다.)"

백의(白衣)의 출가후보자들이 스님이 되기 위한 출가 서약을 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광활한 규모의 광장에 식발한 채 즐밋채 앉은 3만 여 출가에 정자의 합장한 모습은 엄숙함을 넘어 신비롭기까지 하다.

태국 방콕 담마까야사원의 담마까야 세티야(Dhammakaya Cetiya) 광장에서는 2월 6일 태국 남자들이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한다는 수계의식이 단기출가인 부앗낙(Buat nak) 행사가 봉행됐다.

이날 수계식에는 1월 19일 전국 340여 사찰에서 출가한 3만4862명이 참석했다. 수계자 중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 온 외국인 출가자도 150명에 달했다.

불교국가인 태국에서 수계의식은 한 소년이 책 읽감을 갖는 어른의 세계로 들어감을 알리는 성년의례다. 국왕을 비롯한 태국 남자들은 대부분 인생의 한 시기에 단기 출가를 해서 '부앗 프라(Buat Phra)'는 승려의 생활을 하며, 그 시기는 보통 결혼하기 직전이다.

이번 행사는 출가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우려한 태국 정부와 태국 승단이 마련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 든 비용은 태국 돈으로 7억5000만 바트(THB), 한화로 환산하면 약 263억원이다.

'10만 승려 집단 수계의식'은 이번 대규모 수계의식의 공식명칭이다. 태국에서는 금년에만 대회 3만여 출가자가 참여하는 행사를 3차례 봉행한다.

출가자들은 수계 전 자만심과 성욕을 버리는 의미로 머리와 눈썹을 미는 삭발의식을 마친 상태였다. 출가의식은 빨리어 경전을 암송하며 탑 주위를 세 번 도는 순례의식으로 시작했다. 새벽이라 어둠이 사라지기 전인 이른 시각임에도 세티야 광장에는 출가의식을 보기 위해 모인 흰옷을 입은 출가자의 가족과 불자들모 가득 찼다.

이날 행사에는 10~60대의 다양한 연령대가 동

참가했다. 출가법요식을 봉행한 뒤 수계법사의 선창에 따라 10계를 수지한 후 "아침마다 계를 암송하고 가슴 속에 불법을 항상 지녀 행복할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을 서원했다.

담마까야사원으로부터 초청받은 일면 스님(생명 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수만 명의 수행자가 49일간 출가해 나라의 안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은 큰 공덕"이라며 "오늘 계를 받은 수행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직면하기도 하며, 회의를 느끼고 우울함에 빠질 때가 많다. 출가 의식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출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10만 출가의식'을 이끈 담마까야사원 부주지 프라바바나(Phrabhavanavaniyakhun) 스님은 "태국 불교의 포교활동이 침체 상태다. 대규모 출가행사는 3년 전부터 기획했다. 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았지만 전국 각 사원의 스님들이 주축이 돼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현재 태국의 출가자는 감소 추세이고, 이들을 가르칠 법사스님들도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출가자와 이들을 가르치는 법사스님을 함께 배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10만 명 출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담마까야사원만의 명상 수행과 탁발수행이 있기에 가능했다.

프라바바나 스님은 "2년 전 1000명의 스님들과 탁발행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50만 명의 스님이 참여하는 행사를 할 수 있었다. 여기서 힘을 얻어 10만 명 출가라는 목표를 세우게 됐다"며 "이 같은 결집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원에서 가르치는 명상수행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마까야사원은 남방불교국가에서는 드물게 참선을 위주로 수련하는 선선터로 150만 여 평의 부지에 태국의 유명 인사들이 신도로 참여하며 전 세계에 51개의 분원을 갖고 있다. 사원은 39년 전부터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지금도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명상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글·사진=이어나는 기자 bohnyung@buddhapia.com

2월 6일 전국 340여 사찰서 3만4862명 수계 49일간 오후불식·탁발수행 등 수행자로 생활

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닌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가정과 사회, 국가의 안녕을 비는 자리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출가자들은 거대한 세티야 광장 내 탑 순례를 마친 뒤 주황색 가사를 수지하고 주지스님에게 세 번 부복(伏)한 다음 수계를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주지스님은 인간 육체의 덧없음을 설파하는 경전을 암송한 후 수계를 상징하는 노란 띠를 출가자의 몸에 걸쳐줬다.

출가의식은 오후 4시에 다시 이어졌다. 수계받은 주황색 가사로 갈아입은 출가자들은 각 사원별로

자들의 공덕으로 태국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계를 마친 사미스님들은 다시 출가 사찰로 돌아가 해제일인 3월 8일까지 오후불식, 탁발수행 등 실제 스님들과 똑같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날 사미계를 수지한 문론 씨일리향소(44) 스님은 행사에 두 번째 참여했다. 스님은 "첫 번째 출가는 스무 살 무렵, 대학 여름방학 때 다들 하는 것이라 별 생각 없이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며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 인간의 생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접한다. 내

태국의 단기출가 행사 부앗낙(Buat nak)

전체 국민의 약 95%가 불자인 태국에서 수계의식은 남자가 '어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통과 의례와 같다. 태국 남성들은 대체로 만20세 전후에 단기출가를 하는데, 이는 출가 자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스님이 되기 위해 남자는 20세 이상으로, 전염성 질환이 없는 건강한 신체를 지녀야 한다. 부모나 승려를 죽인 경력이 있으면 안 되고 부모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신체에 문신을 새겼거나 마약에 중독된 이는 단기출가에 참여할 수 없다. 최근에는 중학교 3학년졸업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승려가 되는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자기 억제와 명상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게 공덕을 돌리기 위함이다.

한편 태국에는 여성 수행자인 비구니가 없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나 남편이 수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한다. 태국 여성들은 이러한 금지를 성차별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승려가 될 수 없는 대신 가능한 많은 공덕을 쌓는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머리를 깎고 사원에서 수행을 하기도 하는데, 탁발을 도는 대신 신도들의 공양으로 생활한다. 태국 내에는 이러한 여성 수행자들을 위한 사원이 10여 곳 정도 있다.



모델: 前 세계 "미세스퀸". (촬영: 방필석 법사)

★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니 ★

신생아 작명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갈아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썩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1년 작명 국가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 738-5577, 739-8259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중각역 2번 출구 조계사역)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필석법사

주역 개인지도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방필석 대외활동

-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3회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회의
• 제 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콤폴보대회 참석
• 제 20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제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승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耕當問奴(경당문노)라 농사일은 마땅히 농부에게 물어보고 작명은 마땅히 작명가에게 물어보고 일이 잘 안풀릴때 개명 하십시오. 그래서 옛부터 작명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 여유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은 必無濟人之이요
- 여유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改名은 必無改名之時라